법무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11. 13.(금)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 개청식 개최

- 무실동 47년의 소중한 기억을 품고 봉산동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다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1. 13.(금) 10:00 원주시 봉산동 원주교도소 신축 청사에서 주요 내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개청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홍연 교정본부장, 송기헌·박정하·최혁진 국회의원, 구자열 원주시장 등 주요 내빈과 교정 관계 인사,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원주교도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원주교도소는 1979년 원주시 무실동에 개청한 이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으나, 도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교도소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과 원활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와 과밀수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선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원주교도소를 봉산동에 위치한 신축 교정시설로 이전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수용 공간을 확충하는 등 보다 인권친화적이며 안정적인 수용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원주교도소는 현대화된 시설과 개선된 운영 여건을 바탕으로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교화 환경을 한층 개선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원주교도소 이전 개청은 낡은 시설과 수용환경이 대폭 개선됨은 물론, 지역사회와 소통을 넓히는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직원들에게 “선진화된 교정시설을 기반으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담당 부서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책임자	과 장 주기남 (02-2110-3366)
		담당자	서기관 임종오 (02-2110-336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